

## (주)노바바이오그린텍 장일선 대표이사 기술혁신상 대통령 표창 수상



**(주)노** 바바이오그린텍 대표이사 장일선은 중소기업청 주최 <제6회 기술혁신대전>에서 P/T 대상 기업(인)으로 선정되어 2005년 8월 29일 기술혁신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주)노바바이오그린텍은 처음 “한국정밀기기”로 시작해 지금의 (주)노바바이오그린텍으로 자리잡기까지 33년의 긴 시간동안 이 회사 장일선 대표의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정신으로 기초과학 기자재를 국산화에 성공하여, 1976년 국내에서는 최초로 개발한 수질오염 자동측정기를 보건사회부 환경처에 납품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5대 하천의 수질오염을 측정하게 된 것이다. 당시 보사부 허가 제1호인 ph측정기를 비롯한 이 기기들의 측정항목은 모두 다섯 가지(ph, 용존산소, 수온, 탁도, 전도도계)로서 이는 주로 상수원의 상류 및 대규모 공단의 하류에 설치해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이며, 이를 통해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조기경보를 발령해 관련단체들이 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임무다.

최근 (주)노바바이오그린텍은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해놓고 이의 상품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는 생산원가를 절감함과 동시에 생산성을 향상시켜 얻은 (주)노바바이오그린텍의 야심작으로 그동안 쌓아온 기술의 노하우가 집약 되어 있는 신개발 수질 측정기를 통해 기존의 측정기가 가지지 못했던 정밀 제어 능력과 데이터 저장 및 확인이 화면상에서 동시에 가능해지는 한편, PC와의 연결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용자들로 하여금 문제 해결을 한층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 있다.

장일선 대표는 아직도 국산 기술력에 신뢰를 갖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 이를 널리 알리고 해외시장 개척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중국시장은 과도기적인 그들의 환경관련 시장 여건상 많은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